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호 [루게 제25154호] 주제105(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리만건동지, 리병철동지, 박도훈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백두의 기상과 강철의 담력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주체의 핵강국, 무적필승의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어가는 결세의 애국자,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된 무한한 긍지와 영광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새차게 설레이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기발이 힘차게 나뭇기는 당중앙위원회청사앞으로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주시어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

여주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러내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저어주시며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

이고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수소탄 시험을 성공시킨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계속진전, 계속혁신해나감으로써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걸사옹위!》

의 구호가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받드시어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며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대 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년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인민군 대원 후보들의 포사격경기를 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로병들이 잘 훈련된 저격무기사수를 길다고 치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께서는 모든 로병부대, 구분대들이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해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탐구하고 훈련의 질을 부단히 높일 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모스콥스키 콤포스메트》, 《콤포스콥스카야 프라우다》, 《멘데예프방송》, 인터넷통신들인 가세마, 루, 우라드뉴스, 미국의 UPI통신, 일본의 코도통신,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헬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데헤-로스통신, 스푸트니크방송, 세네갈신문 《데 보뽀베르》, 로드니아신문 《로드니아 문치포아에》, 브라질인터넷신문 《세파아제 노피시아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헬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하였다.

세네갈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2016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도 실었다.

로씨야, 도이헬란드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

식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산물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훌륭히 수행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의 주인공들로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2016년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정명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법들을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서버리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새로운 성과를 달성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회의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미국의 UPI통신, 세네갈신문 《데 보뽀베르》,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헬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산물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네팔기자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내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아제르바이잔의 인터넷통신 트랜드는 조선인민군 제528연합부대와 제671대면합부대사이의 생방송 동원편을 보신 소식을 전하였다.

민주공고, 도이헬란드, 네팔의 신문, 인터넷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에 축전을 보내었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각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전 43돐에 즈음하여 각하와 귀 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자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튼튼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할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5(2016)년 1월 9일

평양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

로씨야신문 《하바롭스크 역스쁘베스》 지난해 12월 24일부는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의 방방곡곡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김정은명도자의 현지지도는 세 계연론들의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거침없고 활발하며 여유있는 자세로 인민들과 교감하시는 김정은명도자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

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누구나 매혹을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사람들 을 감복시키는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다.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현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지 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지도도파정에 꽃피운 후대사랑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소개하였다.

신문은 어린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미래이다. 후대들에 대한 정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시었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는데 대해 서술하였다.

【조선중앙통신】